담양군, 농업 상생발전방안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적극 지원키로

담양군은 최형식 군수 주재로 지난 20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생생한 얘기를 듣는 '20-40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과 함께 담양식 지속가능 농업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농업 상생발전방안의 3번째 간담회로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4-H연합회 등 30여명이 참석해 담양 미래농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이 20~40대의 딸기, 마키베리, 낙농, 양봉 등 다양한 농업분야의 청년농가들로 농업·농촌에 정착하는데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격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영농시설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선배 농업인과의 소통과 영농기술 전수의 어려움 ▲청년농업인 우대정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선 등을 토로했다.

이에 군은 신규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정기적인 만남의 장 마련,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튜브, 담양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작물재배 등 영농생활, 농촌에서의 육아 등 농업·농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등을 공유하는 등 정서적 유대 강화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을 보니 든든하다. 오늘 청년농업인들의 이야기가 담양의 농업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지금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위기가 농업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자인 농업인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청년 농업인들이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장흥군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19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0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된 사이버교육을 미이수한 대원이 대상이다.

교육기간동안(9월1일~10월31일) 장흥군 민방위대원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하여 약 1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은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 기본상식도 배울 수 있다.

교육방법은 장흥군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사이트(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은 추후 소집훈련에 응소해야 되며, 소집훈련 일시 및 장소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된다.

함평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함평군은 지난 21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인 이형만 전남도 청렴지원관이 강사로 나서 '우리가 청렴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의를 펼쳤다.

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법령과 위반사례를 전달했으며, 평소 업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관행적 부패사항도 실제사례를 들어 상세히 소개했다.

군 관계자는 "누가 뭐래도 공직사회의 가장 첫 번째 기본원칙은 청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함평이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기울여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 '혁신도시 시즌2'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발품 행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 시장은 이날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예결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금주 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과 차례로 만나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총 9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직류(DC)를 기반으로 한 전력사용량 급증과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해 추진된다.

직류전원·부하기술 증가 추세에 맞춰 사용자에게 안전한 전원체계 제공을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직류기기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확보를 목표로 2024년까지 5년 간 혁신산단에 국비 250억 원 등 총 353억 원을 투입,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손금주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등 계속사업비 68억 원을 비롯해, △생활SOC복합화사업(가족센터 및 주차장 건립, 80.66억 원 규모) △빛가람 어린이 친화 가족편의시설 건립(170억) △혁신도시 악취 해소 등 정주여건 생활SOC 확대 투자(698억) △고효율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203.6억)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 기반구축 및 실증시범사업(127억)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에너지 분야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에게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 확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3기 장성군 홍보대사' 10명 위촉

장성군이 22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성군 홍보대사는 군민에게 꼭 알려야 할 군정소식이나 시책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군과 군민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맡은 명예직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장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을 응원하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왔다.

제3기 장성군 홍보대사는 총 10명으로 ▲강성주 바르게살기장성군지회장 ▲안숙자 민주평화통일장성군협의회 고문 ▲김재선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남상록봉사총단장 ▲박형동 남도문예르네상스 자문위원 ▲윤태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장성지회장 ▲장영애 여성단체협의회장 ▲신광섭 축령산 숲 해설가 ▲이덕진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반상한 한국청년회의소 대외교류위원장 ▲김진환 백련동 편백농원 경영지원팀장이 위촉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든든하고 기쁘다"면서 "장성군 홍보대사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아닌,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녔으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 같은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군수는 "우리 군이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장성의 소식이 군민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영광문화원' 신규원사 건립 새로운 시대 맞는다

영광군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영광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립도서관 내에 위치한 영광문화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소 협소로 각종 문화예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2017년 영광문화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건립타당성 평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7월에 착공했다.

영광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건립되는 영광문화원은 지상 3층 연면적 1,516.59㎡ 규모로 다목적실, 전시실, 교육실, 문서고,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영광예술의전당과 영광문화원, 2020년 작은 영화관 건립을 통한 문화클러스터 형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화원이 건립되면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 지역문화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화순군, 예방접종 사업 간담회 개최

어르신 무료 대상포진·독감 사업 공조

화순군이 지난 20일 효율적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2층 교육실에서 '2019년 보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읍·면 보건지소 담당자, 읍·면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당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독감) 등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홍보, 예방접종 업무 추진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오는 9월 중순 실시할 예정이다.

화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는 만65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다.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은 9월 17일부터 관내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유료 접종은 오는 10월 22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제히 시작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예방 접종률을 높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화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379-535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